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AI 반도체의 단기 변동성은 기다렸던 매수 기회

AI 산업의 수요 훼손은 없다

- 단기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증시 및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변동성을 활용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현지시각 6월 5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4% 하락했다. 시장에서 언급된 AI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브로드컴의 실적과 엔비디아의 메모리 사용 축소 가능성 등이다. 브로드컴의 실적과 엔비디아의 메모리 구조 변경은 인공지능 수요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 브로드컴이 FY 2Q26 실적 발표 후 12.6% 하락했다. FY 3Q26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선과 FY 2026 AI 사업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로드컴은 FY 3Q26과 FY 2026의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선을 각각 160억 달러, 560억 달러로 제시했다. FY 4Q26 AI 반도체 매출을 추정하면 208억 달러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7.1%, 3%, 3.2% 하회한다. 수요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브로드컴은 AI 덕분에 XPU와 네트워크 수요가 끝이 없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 주문은 3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8년까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 예상을 밑도는 가이드선의 이유는 공급 제약과 매출 인식 시점의 문제로 판단한다. 브로드컴은 고객 주문이 즉시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매출 인식을 위해선 칩뿐 아니라 메모리, 전력,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준비돼야 한다. 공급망 측면에선 HBM, 선단공정, 첨단 패키징 캐파도 함께 맞아야 한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용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와는 다르다. 브로드컴의 XPU는 엔비디아 GPU처럼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강해도 매출화 속도는 고객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FY 2027 가이드선이 강력하지만 추가 상향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AI 수요 악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 엔비디아의 메모리 구조 변경에 대한 우려도 과하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NVL72 플랫폼에서 SOCAMM DRAM이 랙당 약 55TB에서 28TB로 줄어들 것이며, 192GB 대신 96GB의 SOCAMM을 사용할 것이라는 루머다. 엔비디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세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이며, 창업자 Dylan Patel은 시장에 전파된 요약이 원래 노트의 핵심을 상당 부분 놓쳤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다. 지난 5월까지 세미 애널리스트는 SOCAMM을 엔비디아의 이익 확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SOCAMM이 소켓형 메모리라 별도 가격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96GB SOCAMM 전언과 기존 논리를 감안하면 가격이 오른 SOCAMM의 랙당 총비용을 낮추기 위한 TCO 최적화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은 베라 CPU 36개, 루빈 GPU 72개, ConnectX-9NIC, BlueField-4 DPU, 6세대 NVLink / Switch 등으로 구성된 랙 스케일 플랫폼이다. 루빈은 20.7TB GPU HBM4를 사용하며, GPU 한 개당 메모리 용량은 288GB다. 베라는 54TB의 LPDDR5X SOCAMM이 적용됐으며, 베라 CPU 한 개당 용량은 최대 약 1.5TB다. LPDDR5X는 SOCAMM 모듈 형태로 붙는다. IT 매체 Tom's Hardware는 GTC 2025에서 공개된 보드가 88코어 베라 CPU, 루빈 GPU 2개, 8개 SOCAMM LPDDR 메모리 모듈을 탑재했다고 보도했다. 공개 및 추정된 정보를 역산하면 베라 CPU의 모듈 당 메모리 용량은 192GB다.
- 시장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줄어드는 것은 HBM이 아닌 SOCAMM이다. 같은 8개 SOCAMM 모듈 구성을 전제로 하면 CPU당 SOCAMM 수는 줄어들지 않으나, 사용되는 LPDDR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랙 당 수십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Tom's Hardware의 추정치를 인용하면 엔비디아가 1분기에 LPDDR5X를 GB 당 약 8달러에 조달했다고 한다. 기존 192GB 기준으로 54TB의 LPDDR 비용은 약 432,000 달러다. 용량을 반으로 줄이면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베라 루빈 NVL72 한 랙의 전체 BoM이 수백만 달러 단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계 변경 동기가 될 수 있다.

- 엔비디아의 설계 변경 가능성으로 단기적으로 랙당 DRAM 탑재량 감소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메모리 및 AI 반도체 사이클을 부정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루빈 랙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총수요는 다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양의 베라 루빈 랙(랙당 LPDDR 54TB)이 10,000개라면 총 LPDDR 용량은 540,000TB다. 계산 용이성을 위해 랙당 LPDDR이 28TB로 줄어든다면 랙 10,000개의 총 LPDDR 용량은 280,000TB지만, 랙 출하량이 약 19,300개로 늘어난다면 총 LPDDR은 540,000TB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요가 강력하다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엔비디아가 SOCAMM 용량을 줄이는 이유는 수요 약화가 아닌 고객의 총 소유 비용(TCO)을 줄여 플랫폼을 다양한 고객에게 확장하기 위함일 수 있다. 루머에 따르면 세미 애널리시스는 랙당 비용 감소로 고객의 총 소유 비용이 \$4.16/hr/GPU에서 \$3.9/hr/GPU로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고객이 더 저렴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엔비디아의 전략과 부합하는 변화라고 판단한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부터 시장 플랫폼에 따른 매출 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데이터센터와 엣지 컴퓨팅으로 크게 분류했고, 데이터센터는 1) 하이퍼스케일러, 2) AI 클라우드, 산업 & 엔터프라이즈 등으로 세분화했다. 분기 매출 구성을 새롭게 제시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플랫폼이 하이퍼스케일러만큼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 SOCAMM은 소켓형, 탈착식 모듈 형태다. 기존 LPDDR처럼 보드에 납땜하는 방식이 아닌 CAMM 계열의 압착 접점 방식으로 CPU 보드 위에 장착되는 교환 가능한 메모리 모듈이다. 마이크론도 SOCAMM2를 LPDDR5X용 데이터센터급 모듈러 폼팩터라고 설명했고, 엔비디아도 GB300용 SOCAMM을 모듈형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이퍼스케일러처럼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가장 좋은 사양의 데이터센터 구조를 가져가겠지만,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들은 기업의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HBM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AI의 핵심인 토큰이 생성되는 부분이 GPU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CPU 메모리는 호스트,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 준비, 서비스성 역할에 가깝다. LPDDR은 KV-캐시 관리, 데이터 스테이징, 오케스트레이션 등 랙 스케일 시스템 효율에 중요하지만, 실제 토큰 생성의 핵심 연산과 초고대역폭 메모리 병목은 여전히 GPU/HBM 쪽에 있다. SOCAMM 용량 축소를 HBM4의 수요 훼손이나 토큰 처리 능력의 동비를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 핵심인 HBM과 AI형 고급 DRAM은 사실상 장기계약 상태에 가깝다. 마이크론은 2026년 HBM 공급이 장기계약으로 사실상 소진됐고, 2028년 물량도 일부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OCAMM은 초기 생태계라 명확히 공시된 시장은 아니지만 공급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 SOCAMM의 랙당 비트가 줄어들더라도 LPDDR/SOCAMM의 타이트한 공급과 가격 상승이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엔비디아가 TCO를 낮춰 베라 루빈 출하량을 늘리면 수익성이 좋은 HBM4의 총 수요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 인공지능 투자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알파벳은 AI 인프라와 컴퓨트 확장을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강한 투자자 수요로 조달 규모가 848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메타도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주식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스페이스X는 75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이며, S-1에서 조달 자금 사용처 중 하나로 AI 컴퓨트 인프라 확장을 명시했다. 이후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엔트로픽, 오픈AI도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컴퓨팅 투자가 불가피하다.
- 이번 조정은 AI 수요 훼손 영향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및 AI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시장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감안하면 거칠지만 건전한 조정 성격이 강하다.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며, 변동성이 발생한 구간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 하반기 전망 추천 종목: 1) 공급망 병목: MU, NVDA, STX, COHR, GLXY, 2) 시장 지형 변화 및 기업의 진화: AMD, AMZN, 3) 피지컬 AI: NOV, RRX, CGNX, TKR 등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383.7	25,709.4	50,866.8	4,027.7	2,763.9
1W (%)	-2.6	-4.7	-0.3	-1.0	-1.5

주) 6월 5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6월 1일~6월 5일) 리뷰: 나스닥 급락

- 지난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VIX 지수는 15.3에서 21.5로 40.4% 급등했다. 미국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다. S&P 500 -2.6%, 다우지수 -0.3%, 나스닥 -4.7% 등이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과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각각 2.9%, 0.5% 떨어졌다. 가치주 ETF(VTV)는 강보합이었으나, 성장주 ETF(VUG)는 4.1% 하락했다. 3월 이후 많이 상승한 기술 및 성장주가 더 많이 하락했음을 시사한다. M7 ETF(MAGS)와 비 M7 ETF(XMAG)의 주간 가격 변동은 각각 -5.9%, -1.2% 등이다.
- 현지시각 5일 미국증시의 변동성을 야기한 것은 통화정책 불안이다. 5월 실업률은 4.3%로 전월치 및 예상치와 동일했다. 5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172,000 건으로 전월치(179,000 건)보다 낮아졌지만, 시장 전망 85,000건을 크게 상회했다. 5월만 강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전 두 달 수치도 상향됐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간당 임금(YoY)는 3.4%로 예상 수준이었으나, 4월보다 완화됐다.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됐으나, 임금 상승률이 완만해졌다는 점에서 과열은 아니다.
- 시장참여자들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졌을 것이다. 고용지표를 감안하면 연준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ME FedWatch에 따르면 7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전망은 6월 5일 기준 12.5%로 5월 29일 6.4%보다 높아졌다. 9월 25bps 금리 인상 예상치는 6월 5일 34.1%로 5월 29일 19.5%보다 상향됐다. 6월 FOMC의 기준 금리 결정 회의는 6월 17일에 개최된다. 새로운 연준의장인 캐빈 워시가 처음으로 FOMC에 합류한 통화정책 결정 회의다. 6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빈 워시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연준의 후행적인 관행을 비판하던 인물이다. 캐빈 워시의 발언에 시장참여자들의 이목이 더욱 쏠릴 것이다.
- 주간 상승 섹터는 에너지(+2.5%), 헬스케어(+2.3%), 부동산(+1.5%), 금융(+1.3%), 필수소비재(+0.9%), 산업재(+0.6%) 등이다. 하락 업종은 경기소비재(-6.2%), 정보기술(-5.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3.9%), 소재(-1.2%), 유틸리티(-0.3%)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과 함께 올랐다. WTI와 브렌트 가격은 각각 3.3%, 1.8% 높아졌다.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는 증시 변동성 덕분에 업종의 방어적 특성이 부각됐다. 금융 섹터는 은행주 상승이 긍정적이었다(BAC +4.3%, WFC +5.7%, JPM +4.4%). 하락 상위의 경기소비재는 테슬라(-10.3%)와 아마존(-9.1%)의 큰 폭 하락이 섹터 수익률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다.
- M7 기업들은 모두 하락했다(AAPL -1.5%, NVDA -2.9%, GOOGL -3.1%, META -6.2%, MSFT -7.5%). 개별 기업의 이슈보단 성장,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 영향이 더 크다. 반도체로 구성된 ETF(SOXX)는 주간 수익률 기준 5.2% 하락했다. 차익실현의 빌미로 언급되는 건 브로드컴의 실적과 세미 애널리시스의 엔비디아의 메모리 구성 변경 등이다. 이번 주 이슈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시 하락과 함께 많이 상승한 반도체 주가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했을 순 있으나, 인공지능 수요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한다.

» 이번 주(6월 8일~6월 12일) 프리뷰: 시장참여자들의 다소 보수적인 시장 대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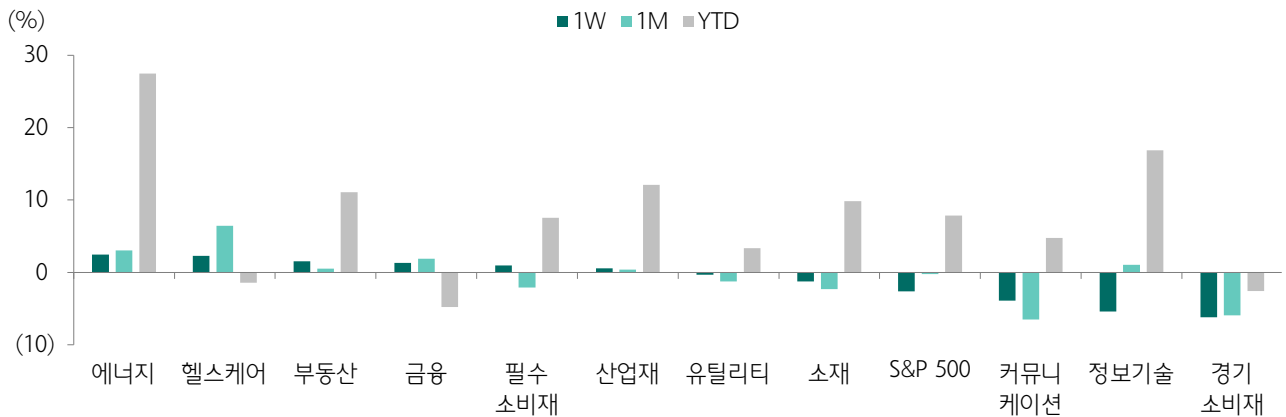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지난주 갑작스러운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조심스러운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할 경제지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다. 5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YoY 예상치는 +4.2%, MoM 전망치는 +0.3%다. 각각의 이전치는 YoY +3.8%, MoM +0.6%다. 5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의 컨센서스는 YoY +2.9%, QoQ +0.5%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의 4월 발표치는 YoY +2.8%, MoM +0.4%다. 시장참여자들은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발표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가 영향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될 여지가 있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 수준이 나온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소 안심할 것이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 미국 정부의 섀도우 영향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위클리 자료를 통해 언급했었다. 왜곡된 수치가 정상화 된다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화될 것이다. 호텔 및 관련 서비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은 다소 있다. 월드컵이 있기 때문이다.
- 상품 물가에 관세와 높아진 유가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S&P 500의 주당 순매출 컨센서스는 연초 2,133.7 달러에서 2,208.9 달러로 상향됐다(+3.5%).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335 달러로 연초 308.3 달러 대비 8.7% 개선됐다. 외형 확장 대비 이익 개선세가 더 높은 상향률을 보인 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비용효율화 영향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가격 전가 영향도 있을 것이다. 높아진 관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넘겼을 여지가 있다. 높아진 국제 유가는 직접적으로 휘발유 가격 등을 올릴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운송비 상승을 야기했을 수 있다.
- 인공지능도 물가에 영향을 미쳤을 영향이 있다. 주로 소비자들의 전자기기 가격을 올렸을 것이다. 마이크로는 올해 강력한 기업용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용 제품 생산을 줄였다. AMD는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한 클라이언트 및 게이밍 라인을 데이터센터용 제품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소비자용 제품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 이번 주엔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26)이 예정돼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애플의 AI 전략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첫날 키노트와 함께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도구, AI 관련 업데이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의 인공지능 플랫폼 완성도에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지난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개인화 시리 서비스는 일정이 지연됐으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직도 애플의 약점으로 인공지능이 꼽히는 이유다.
- 일부에선 올해 애플의 개발자 행사에서 신제품 발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에어태그 2세대, A19 칩과 맥세이프를 탑재한 아이폰 17e 업데이트, M4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M5 맥북 에어, M5 Pro/max 맥북 프로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이다. 부품 수급난도 문제다. 전 세계 메모리 수급 불안정으로 신제품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가 낮은 만큼 애플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시장참여자들은 더욱 주목할 것이다.
- 어도비의 실적 발표도 있다. 어도비의 주가 수익률은 YTD 기준 -24.6%로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한다.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낮다는 증거다. 지난 Summit 2026 행사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실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도비는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 성과를 최적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혁신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하드웨어 기업들은 강력한 수요를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제시할 여지가 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선호를 강하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로는 9일 5월 뉴욕 연방은행 1년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이전치 3.6%) / 5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예상치 96, 이전치 95.9) /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35.75K) / 4월 무역 및 수출입 데이터 / 5월 기존 주택 판매(예상치 4.08M, 이전치 4.02M), 10일 2분기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Now / EIA 단기 에너지 전망 /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57%) / 5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YoY(예상치 4.2%, 이전치 3.8%) / MoM(예상치 0.3%, 이전치 0.6%) / 5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YoY(예상치 2.9%, 이전치 2.8%) / MoM(예상치 0.5%, 이전치 0.4%), 11일 미국채 10년물 입찰 / 5월 생산자 물가지수MoM(예상치 0.5%, 이전치 1%)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1,777K), 12일 6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이전치 44.1) /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예상치 46.6, 이전치 44.8) / 6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전치 4.8%) / 5년(이전치 3.9%) 등이 있다.
- 연준 인사들은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8일 CPB, 9일 SJM / UEC, 10일 ORCL / CHWY, 11일 ADBE / LEN / RH / LOVE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6/05)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383.7	-2.6	-2.6	-0.2	9.6	7.8	23.1	7.9
나스닥	미국	25,709.4	-4.2	-4.7	-2.0	14.8	9.2	31.6	10.6
다우	미국	50,866.8	-1.3	-0.3	2.5	7.1	6.6	19.0	5.8
STOXX600	유럽	622.7	-0.3	-0.5	1.7	4.0	7.7	12.5	5.1
KOSPI	한국	8,160.6	-5.5	-0.3	8.8	46.1	96.4	190.2	93.6
KOSDAQ	한국	1,002.4	-4.5	-9.2	-17.0	-13.2	8.0	32.6	8.3
상해종합지수	중국	4,027.7	-0.7	-1.0	-3.6	-2.3	2.6	19.0	1.5
심천종합지수	중국	2,763.9	-1.3	-1.5	-3.9	2.4	10.6	37.7	9.2
항테크지수	홍콩	24,962.0	-1.2	-0.9	-5.4	-3.1	-3.1	4.9	-2.6
TOPIX	일본	3,949.1	-0.1	-0.2	3.1	6.2	16.7	42.6	15.8
니케이 225	일본	66,588.1	-1.3	0.4	6.2	19.7	31.6	76.4	32.3
니프티 50	인도	23,366.7	-0.2	-0.8	-3.3	-4.4	-10.0	-6.5	-10.6
Vietnam	베트남	1,838.9	0.4	-1.3	-4.0	4.0	4.9	38.3	3.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6.0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이란 갈등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 우려로 WTI·브렌트 동반 상승, 에너지 섹터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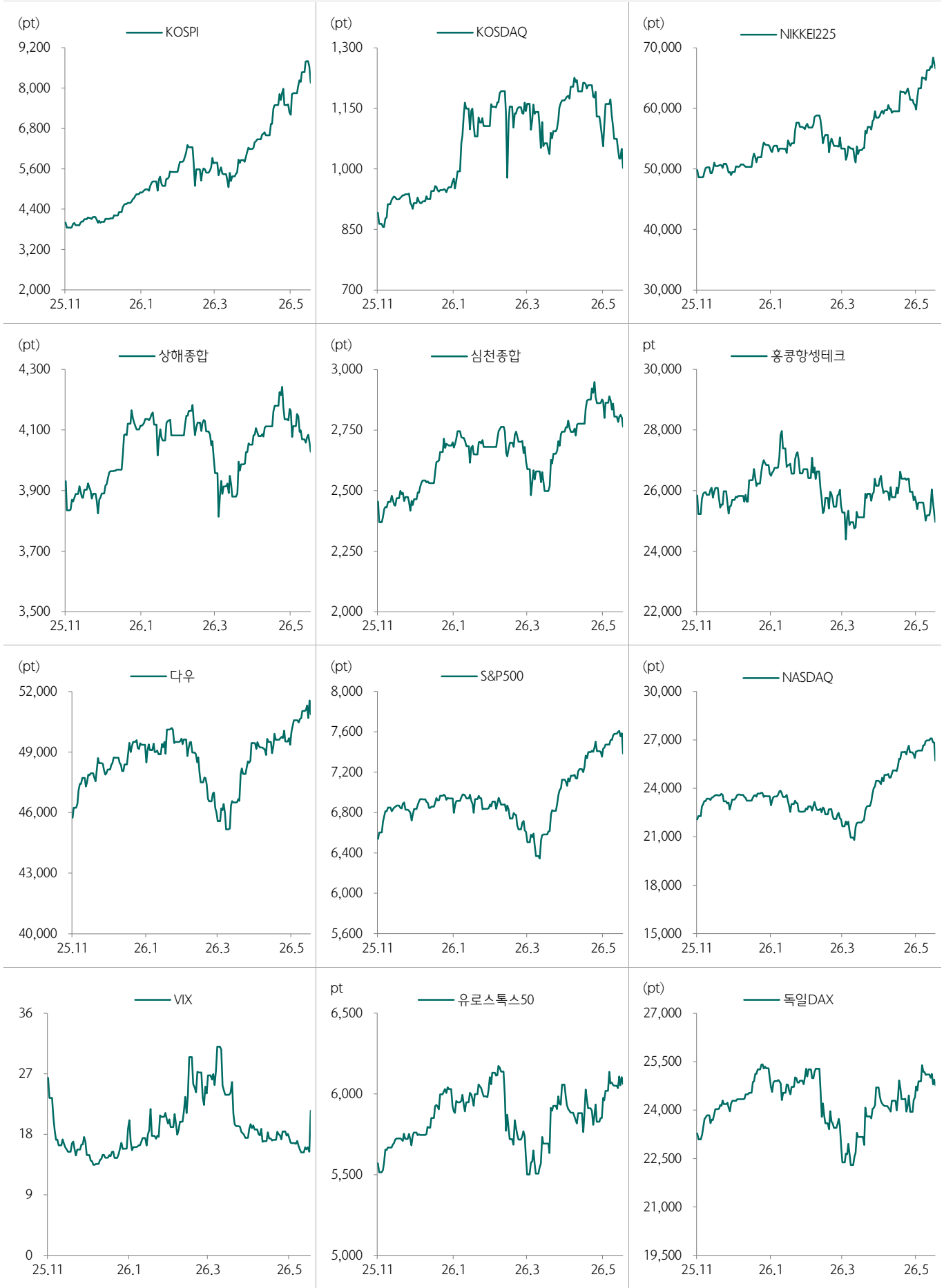
- 경기 소비자재: 테슬라(-10.3%)와 아마존(-9.1%) 등 대형주 급락이 섹터 수익률 악화 주도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6/2	<p>이란, 미국과 종전 협상 중단. 호르무즈-홍해 봉쇄 확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이 1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 및 문안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타스님 통신이 보도. 이란 협상단은 레바논 문제가 휴전 전제조건이었으나 현재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완전 철수를 요구. 이란과 저항 세력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와 함께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10%가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홍해) 봉쇄 등 전선 확대 방안도 검토 중
6/2	<p>엔비디아, 휴머노이드 AI 모델 '아이작 그루트' 공개- 中 유니트리와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일 대만 기조연설에서 휴머노이드 중심 AI 모델 '아이작 그루트(Isaac GR00T)'를 공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의 로봇(180cm·68kg·31 자유도)과 엔비디아의 젯슨 토르 하드웨어·블랙웰 CPU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엔비디아의 전체 소프트웨어-데이터-시뮬레이션 스택이 통합 탑재
6/2	<p>알파벳, AI 투자 위해 800억 달러 유상증자. 버크셔 100억 달러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파벳이 1일 AI 투자 확대를 위해 800억 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 일반공모 300억 달러, ATM 400억 달러, 제3자 배정 사모 100억 달러로 구성. 버크셔해서웨이가 클래스A·C 주식을 각 50억 달러씩 매입하기로 합의. 발표 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대 증반 하락
6/3	<p>JP모건 "AI 생태계 내 메모리 가치 상승, 다년차 업사이클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JP모건이 AI 생태계 내 메모리의 중요성 확대를 강조하며 메모리 시장의 다년차 업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 엔비디아 Vera CPU가 LPDDR5X 메모리를 채택해 수요 모멘텀을 추가할 전망이며, 출하량은 2026년 60만대에서 2027년 300만대로 급증 예상. SK하이닉스는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100만 WSPM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이를 공급 부족 대응 조치로 해석. 차세대 HBM 냉각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HPB, SK하이닉스는 iHBM(방열 성능 30% 개선)을 각각 HBM5부터 적용할 계획. 키오시아는 2028년 NAND TAM을 1,807EB(CAGR +22%)로 상향 조정하며 최소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6/5	<p>브로드컴 AI 매출 전망 실망에 반도체주 급락...월가 "밸리 숨고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드컴이 3분기 AI 반도체 매출을 160억 달러로 전망했으나 시장 예상치(172억 달러)에 못 미치며 주가 12% 폭락. 마이크론(-7%), Arm(-4%), AMD(-3%), 퀄컴(-2%) 등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하락세 확산. 구글이 일부 AI 칩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목. 키뱅크는 "시장 기대치가 반도체 업종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으며, 월가는 대체로 AI 사이클 종료보다는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
6/5	<p>미국 5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 2배,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노동부,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2천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8만명)를 2배 이상 상회했다고 발표. 3~4월 수치도 합산 9만3천명 상향 조정. 실업률은 4.3% 유지, 시간당 평균임금은 MoM +0.3%·YoY +3.4%. 예상 외 고용 호조에 CME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일 대비 23%p 급등한 70%로 반영됐으며, 10년물·3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4.5%·5.0%를 돌파. 엘-에리언은 "이번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연준 기대를 더욱 매파적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평가
6/7	<p>젠슨 황-정익선, 서울 회동 - 엔비디아-현대차 피지컬 AI 동맹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우래옥에서 약 1시간 회동. 황 CEO는 8일 현대차 양재 본사를 추가 방문해 정 회장과 면담할 예정. 양사는 지난해 1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30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에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와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음. 이번 회동에서는 보스턴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업,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개발 등 피지컬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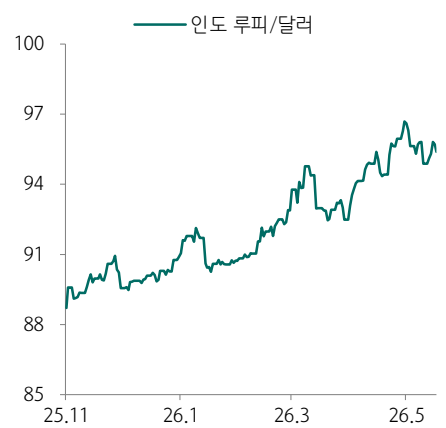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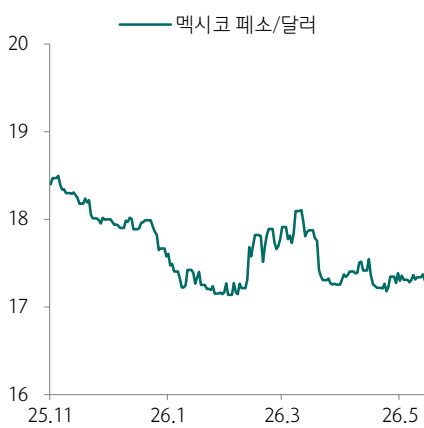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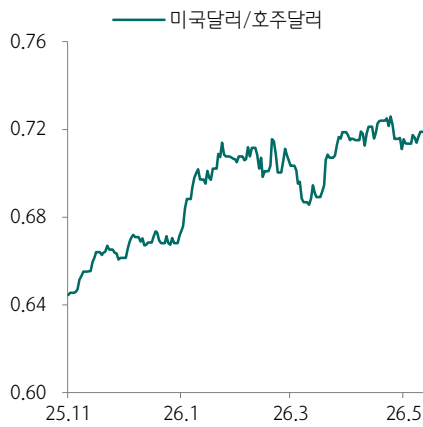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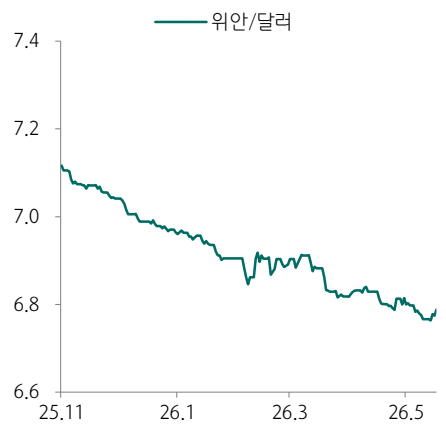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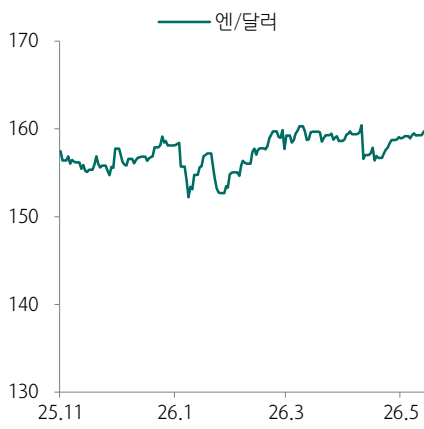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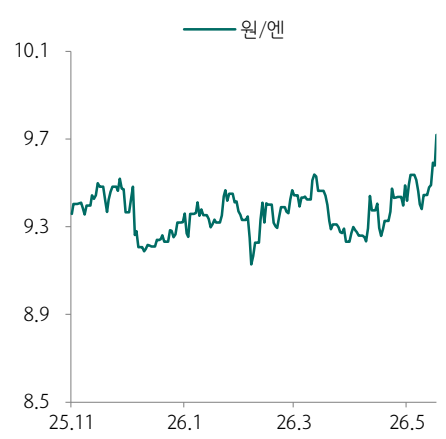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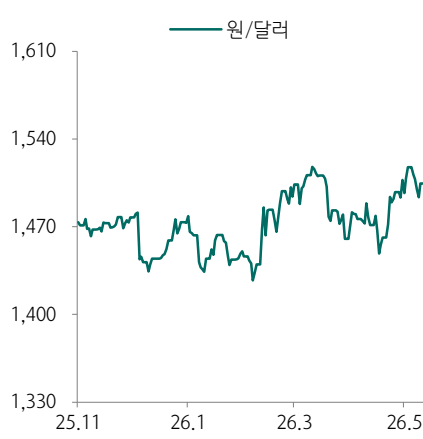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6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5
HPE CRDO SAIC	PANW DG ULTA DCI GTLB VSCO BWLP SIG	AVGO CRWD MDT M PAYP FIVE SSL VEEV	CIEN IOT PL LULU RBRK COO GWRE DOCU AGX TTC TTAN	ABM CMCM VIRC
8	9	10	11	12
CPB MTN	CASY SJM CNM SAIL	GME CHWY THO	ADBE KR RH	FRHC
15	16	17	18	19
CVGW CGC	ORCL UEC WLY	ATEX	CAN JBL DRI CMC	FDS KMX
22	23	24	25	26
LEN	FDX SUNB WOR LZB	KFY KBH	NKE MKC AYI BB	
29	30			
TLK DRVN	CCL AVAV PRGS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6/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기존주택판매 (이전 4.02M) 4월 무역수지 (-60.30B)
6/1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이전 0.6%) 5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이전 0.4%)
6/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이전 1.4%) 5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이전 1.0%) 5월 연방재정수지 (이전 215.0B)
6/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 [P] (이전 3.9%) 6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8%) 6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심리지수 (이전 44.1/44.8)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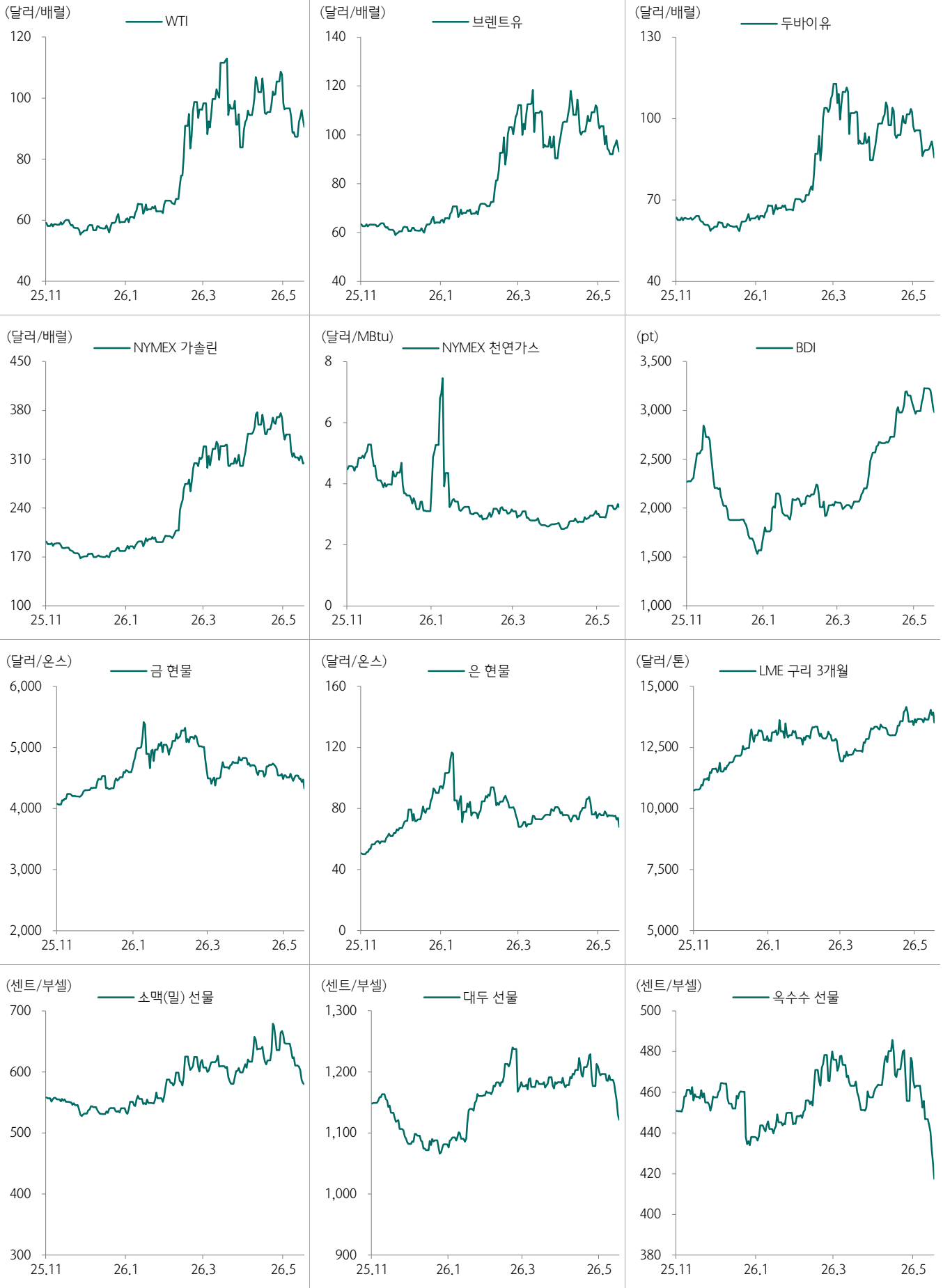
환율 추이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6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